

'굿~ 출발' 임성재 통산 2승 사냥

PGA 왕중왕전 5위 기세 몰아
내일 개막 소니오픈 우승 도전
최경주·양용은·김시우 등 출전

임성재(23·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60만달러)에서 통산 2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44야드)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2021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PGA

투어 대회다. 임성재는 지난 11일 끝난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5위에 오르며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2020년 투어 대회 우승자와 2019-2020시즌 투어 챔피언십 출전자 등 42명만 출전한 일종의 '왕중왕전'이었다. 임성재는 새해 첫 대회에서 끌어 올린 자신감을 소니오픈으로 몰고 갈 기세다. 소니오픈에서 임성재는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 이후 약 10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소니오픈은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와 마

찬가지로 하와이를 무대로 열린다. 42명의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출전자 중 32명이 소니오픈으로 건너간다. 해리스 잉글리시(미국)는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디펜딩 챔피언 캐머런 스미스(미국)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2008년 우승자 최경주(51)와 스폰서 초청을 받은 양용은(49) 등 한국 골프의 역사를 장식한 베테랑 선수들도 출전한다. 김시우(26), 이경훈(30), 강성훈(34)은 이번 대회로 올해 PGA 투어 일정을 시작한다. 교포 선수인 케빈 나, 제임스 한, 디그 김, 마이클 김(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도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임성재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우즈, 한때 미켈슨 깔봤다"

골프 전문가, 다크서 증언
체중 관리 실패가 주된 이유



우즈(오른쪽)와 미켈슨

'타이거 우즈가 없었다면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필 미켈슨(이상 미국)에게 따라붙는 말이다. 미켈슨은 우즈에 이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2위에 올라 있고 통산 우승 횟수(44승)에서도 현역 선수 가운데 우즈에 이어 두 번째다. 미켈슨은 또 PGA투어에서 사실상 유일한 아마추어 신분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다. 골프 선수로서 재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우즈는 전성기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미켈슨을 하찮게 여겼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HBO가 방영한 우즈의 사생활 등을 다룬 다크멘터리 '타이거'에서 골프 전문가 앨런 시프닉은 "우즈가 미켈슨을 깔봤다"고 말했다. 라이벌 선수를 존중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업신여겼다는 얘기다. 우즈는 미켈슨의 재능은 인정했다. 자신만큼 골프 선수로서 재능은 뛰어났다고 평가했지만

"노려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고 시프닉은 설명했다. 미켈슨의 체중 관리 실패는 우즈가 미켈슨을 우습게 여긴 이유 중 하나였다. 우즈와 우즈의 어머니 톨디는 미켈슨의 똥똥한 몸매를 놓고 놀려대기 일쑤였다. 톨디는 미켈슨의 공인된 별명 '레프티'(왼손잡이) 대신 '똥똥이'(hefty)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즈와 미켈슨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 둘의 '브로맨스'는 2018년 맞대결 이벤트에 이어 지난해 미국프로풋볼(NFL)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치른 2대2 대결 등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미켈슨은 특히 2019년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극적인 우승을 거두자 남긴 "타이거, 정말 멋졌어. 최고의 경기였어. 행복하길!"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써 우즈의 옷장에 남겼다. /연합뉴스

유도 김원진, 아버지에게 바친 '눈물의 금메달'

11개월 만의 국제대회에서 우승
메달 획득 후 부친상 소식 접해
경량급 간판 안바울도 금메달

유도대표팀의 경량급 간판 안바울(남양주시청·세계랭킹 13위)과 김원진(안산시청·세계랭킹 12위)이 11개월 만에 참가한 국제유도연맹(IJF)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원진은 금메달을 획득한 뒤 뒤통에 부친상 소식을 접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안바울은 1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 도하 마스터스 대회 첫날 남자 66kg급 결승에서 이스라엘의 바루크 스마일로프(세계랭킹 8위)를 연장전(골든스코어) 접전 끝에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었다. 경기 초반 지도한 개씩을 주고받은 안바울은 4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해 연장전을 펼쳤다. 두 선수는 연장전 1분 44초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친다는 이유로 지도한 개씩을 다시 받았다. 승부는 연장전 2분 21초에 갈렸다. 안바울은 '필살기'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스마일로프의 도복을 잡고 주저앉은 뒤 왼쪽 어깨로 들어 올리는 업어치기 기술을 성공했다. 안바울을 금메달과 함께 랭킹 포인트 1800점을 획득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은 지난해 1월 텔아비브 그랑프리 대회와 2월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연속 국제대회 금메달

을 획득하며 2020 도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국제대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국내에서 훈련에만 전념해야 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주변 환경도 여수 선했다. 그러나 안바울은 예전 모습 그대로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60kg급의 간판 김원진도 금메달과 랭킹 포인트 1800점을 획득했다. 그는 3회전부터 결승전까지 4경기 연속 한판승을 따내며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타이베이의 양용웨이의(세계랭킹 11위)와 결승에서 '누우면서 던지기 한판승'으로 승리했다. 김원진은 경기 종료 1분 19초를 남기고 메치기를 시도하는 양용웨이의의 기술을 받아쳤다. 원발로 양용웨이의의 발을 건 뒤 그대로 매트에 꽂았다. 김원진은 한판임을 확신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원진은 금메달을 부친의 영전에 바치게 됐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김원진의 부친은 10일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별세했다"며 "유가족은 국제대회에 참가 중인 김원진에게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지 바랐고, 김원진은 경기가 끝난 뒤 부친상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첫날 금메달 2개로 일본(금메달 1개, 은메달 2개)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한국 대표팀이 11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무대다. /연합뉴스



김원진이 12일 카타르 도하 루사일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1 도하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영수 전남도의원,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 당선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사진)이 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으로 당선됐다. 차 의원은 최근 한국대학역도연맹 임원 총회를 통해 한국대학역도연맹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역도선수 출신으로 제5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한 차 의원은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역도 총감독으로 장미란 선수의 세계신기록을 이끌어냈으며, 2014년 태국 치앙마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되긴 했지만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강진군으로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2024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재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정받아한국대학역도연맹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재임에 성공했다. 차영수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역도를 포함한 모든 체육종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위기를 모든 체육인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박석인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대표, 광주시탁구협회장에

박석인(60·사진)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대표가 제2대 광주시탁구협회장에 당선됐다. 1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치러진 광주탁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과 지도자, 선수 등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4년간 활동한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실업팀 연고지 유치 이전 ▲남자고등부 팀장단 ▲저변확대를 통한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특별고문 결성을 통한 협회 재정 확충 ▲협회 임직원 단합 탁구대회 개최 ▲구탁구협회와 상생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구연합회장, 광주시 탁구연합회 부회장, 광주 서구 생활체육회 감사,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를 거쳤 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 회장은 "비대면 뉴스 포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과 대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동호인과 힘을 모아 광주탁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광주 서구 탁구연합회장, 광주시 탁구연합회 부회장, 광주 서구 생활체육회 감사,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를 거쳤

박형택 현대아미스 부회장, 광주시바둑협회장에

박형택(69·사진) ㈜현대아미스 부회장이 제7대 광주시바둑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바둑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적격심사를 거쳐 광주시바둑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형택 ㈜현대아미스 부회장을 당선자로 결정했다. 박 당선인은 "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편입되고 '바둑진흥조례안'이 2019년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바둑 인구 저변 확대, 바둑 영재 발굴, 바둑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남 출신인 박 당선인은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체육복지건강과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전국초등핸드볼연맹 감사를 역임했으며 광주 교육상, 자랑스런 해남인 상, 자랑스런 복성인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원더 우먼 1984
2관	신과함께-죄와 벌
3관	미스터 존스, 도굴
4관	원더 우먼 1984, 러브 액츄얼리
5관	원더 우먼 1984, 빅풋 주니어2: 패밀리가 떴다
6관	원더 우먼 1984
9관	조제, 걸
7관 씨네커피	안벽한 가족, 런 미라기 큰 결정을 해야해
8관 씨네커피	미스터 존스, 이웃사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 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 작품공모

2021 광주국악상설공연 창작공연작품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국악공연에 관심이 있는 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1. 1. 11.(월) ~ 1.20.(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10:00 ~ 17:00)
접수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
문의 | 062-613-8379